

# 현대 패션에 나타난 의복구성의 부분 변형

김 영 란

혜천대학 패션코디네이션전공 초빙교수

## The Partial Transformation of Clothing Construction in Modern Fashion

Young-Ran Kim

Visiting Prof., Dept. of Clothing & Fashion Coordination Design, Hyecheon College  
(2006. 12. 20. 접수 ; 2007. 1. 25. 채택)

### Abstract

Fashion have been expressed by a face through various a period, social change, and various culture changing. Human expresses as "Transformation" by applying these needs of changing to the fashion.

A origin tribe expressed its own self by using direct body transformation and extreme decorations in the past. However, human express creative and esthetic desire based on shape, material, and transformation method in the present time characteristics of the body. Exceptional transformation breaking a existing fixed idea appeared frequently due to dissolution through transformation which is positive expression method in the fashion from 20th century.

As a results, followings are obtained in this study. First, human body transforms by using a tool or intermediation in investigation of aesthetic meaning for human body. The object, Transformation, is stably transformed by disintegration, distortion, exaggeration and simplification reduction, as design's sensitivity. Second, transformation from relation of clothing composition is expressed by extension, reduction, simplification, and dissolution.

In transformation from original tribe's sensitivity, past decorative desire lead to transformation of human body. To give variable change from past to present fashion, external formative will is introduced. Then, extreme expression is made by direct transformation of clothing type. It seems to be accomplished that human body's expression method is continuously changed into extension, exaggeration, reduction, and dissolution from transformation method as described before. Transformation of modern fashion is expression method by creative supervision. Extreme transformation substituted body's each part is based on immanent play and representative satisfaction.

Through these transformation, it is judged that variety of creative type is achieved.

**Key Words:** Transformation(변형), Detail(디테일), Human body(인체), Clothing construction(의복구성)

---

Corresponding author ; Young-Ran Kim

Tel. +82-43-236-7004, Fax. +82-2-760-4484

E-mail : yrkim@hcc.ac.kr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현대패션은 시대의 사회적 변화 및 다양한 문화적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다양한 얼굴로 표현 되어왔다. 인간은 이러한 변화의 욕구를 패션에 적용시켜왔고 최근 포스트모던의 영향으로 혼성모방의 특성을 보이는 다양한 변형의 형태를 보여 왔다. 과거의 복식이 시대의 미적 관점에 따라 변형되어 졌다면 20세기 이후에는 인체를 재인식하여 패션에 있어서 확대, 축소, 단순화, 해체등의 표현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타남과 동시에 기존의 관념을 깨는 파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디자이너들은 그 시대의 문화적 특징을 의복에 도입하여 새로운 패션의 창조를 위한 방법으로 ‘변형’이라는 독특한 표현 과정을 통해 또 다른 미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패션을 이해하는데 큰 열쇠로 간주되어온 사회적 구별이란 도식은 옷의 영역이나 대상들과 현대문화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패션의 특징을 근본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패션의 ‘왜곡된 형태들’ 너머에서 민주제도와 의식의 자율성에 대해 패션이 가진 위대한 긍정적인 힘은 개인주의의 표현이라는 점이다<sup>1)</sup>. 과거의 변형 가운데 인체의 이상적인 미와 균형을 위한 것이 있다면, 20세기 이후 패션에서의 변형은 자유로운 창조적 주관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확대, 축소, 단순화, 해체를 통한 변형의지가 나타남으로써 재인식된 인체와 의복을 통해 부분적인 변형을 시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세기 이후 확대, 축소, 단순화, 해체의 패션에서 적극적인 표현의 수단인 ‘변형’을 통해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는 파격적인 변형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시대와 문화에 따른 인체 미의식의 변화로 패션에 있어 다양성을 보여주었다. 현대패션 디자인에 외적 조형의지와 내적 조형의지가 반영되는 과정과 그 표현 특성을 연구하고, 특히 인체부분과 의복구성 부위의 연관성을 통해 보여 지는 변형과정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대패션의 변형을 알아보기 위해 20세기 이후 패션에 나타난 의복형태의 구조적 변화와 심리적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인 확대, 과장, 축소, 왜곡을 통해 인체를 재인식하여 표현하는 변형의 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20세기 이후 패션에 나타난 확대, 축소, 단순화, 해체에 따른 변형의 의미와 ‘변형’의 개념을 파악하고

둘째, 의복구성학적인 관점에서 인체의 미적 의미 및 의복의 연관성을 인체와 의복구성에 표현된 디테일 변형으로 칼라, 네크라인, 어깨(재킷:상의류), 소매, 브라, 뷔스티에, 코르셋, 스커트, 팬츠의 형태가 패션에 나타난 ‘변형’의 방법인 확대, 축소, 단순화, 해체를 통해 알아보며

셋째, 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디자이너의 미적 의지의 표현방법을 의복 외관의 구조적 변형의 변화과정 및 내적인 조형의지의 의한 변형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20세기 이후 현대 패션에 나타난 확대, 축소, 단순화, 해체의 변형이 인체의 부분들을 의복에 대입하여 각 구성부분에서의 다양한 변화를 재조명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선행 연구들과 차별화하여 인체를 재인식하여 의복구성에 표현된 세부적인 디테일 변형을 구조적 변화와 심리적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인 확대, 과장, 축소, 왜곡을 통해 표현하는 다양한 변형의 과정을 알 수 있다.

더불어 패션에 있어 확대, 과장, 축소, 해체가 의복구성부분들의 변형에 영향을 주는 표현 의지이며 변화하는 시대의 미적인 욕구와 의미를 창조적으로 반영하는 주요한 도구로서의 자료로 활용되는데 그 의의를 둔다.

###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수행 방법으로 20세기 이후 현대 패션에 나타난 의복구성 부위의 변형을 알아보기 위해 과거의 복식에 나타난 변형의 과정은 관련 문헌자료를 활용하여 그 의미와 상징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패션에 있어 확대, 축소,

단순화, 해체에 따른 변형이 상징하는 인체의 재인식을 통한 의복구성의 부분 변형을 과거와 현재까지의 참고문헌을 통해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위의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과거의 복식과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의복구성 부위의 변형을 분석하는데 있어 인체와 패션에 나타난 변형의 표현 방법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적합한 작품이 게재된 collection지와 잡지, 화보집, 관련 인터넷사진들을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여성복을 중심으로 인체와 그 부분들은 목, 어깨, 팔, 가슴, 등, 허리, 엉덩이이며 이와 관련된 의복의 구성부분인 칼라, 넥라인, 어깨(재킷:상의류), 소매, 브라, 뷔스티에, 코르셋, 스커트, 팬츠로 제한하고자 한다. 의복구성학적인 관점에서 변형의 방법인 확대, 축소, 단순화, 해체의 의미를 가진 패션디자이너 작품들로 의복의 외적인 형태의 변형이 육안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작품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용어의 사용에 있어 인체로 사용되는 부분은 해부학적인 부분을 표현하는데 적합하고 신체로 표현되는 부분은 바다 이미지나 외관의 형상에 어울리는 언어의 뉘앙스로 인해 혼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패션에 나타난 변형의 특성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 단순히 형태를 변형하는 과정이 아닌 디자이너의 인위적인 창조성이 결합되는 과정으로 보아 외적인 조형의지를 형태의 변형과 소재의 변형, 의복구성학적 변형의 특징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외적인 조형의지를 가능하게 하는 변형의 근원을 탈 신체, 탈 시대 및 문화로 나누어 그 심미적 표현의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해체와 변형의 의미

20세기 이후 패션은 디자이너의 감성과 시대적 이슈 및 다양성의 결과로서 일반적인 형태의 의복을 벗어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최근의 대중문화와 소비문화에서 부각되고 있는 ‘몸’의 이미지의 확산은 쾌락, 욕망, 차이, 놀이를 강조하는 현대 소비주의의 특성으로 후기 산업사회로의 전환의 과정에서 생긴 문화적 환경의 일부이다. 개성을 강조하는 현대의 소비문화에서 몸은 멋진 삶의 상징이며 문화 자본의 표식으로서 개인의 감정이 흐르는 통로이며 욕구와 욕망에 의해 변형 가능한 존재 양식으로 새로이 간주되고 있다<sup>2)</sup>. 패션은 인체를 매개로 하여 인간의 사회적, 문화적 특징을 표현하는 가장 시각적인 매체로 한 시대의 패션 문화를 형성하는데 있어 정치, 경제, 문화, 기술 등의 사회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패션은 단순한 정보나 디자이너의 창작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옷을 입는 사람, 상황, 방법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때로는 디자이너의 철학과 사고를 바탕으로 한 실험적 시도로 새로운 의미나 가치의 생산을 자극하고 기존관념에 대한 거부를 나타내기도 한다<sup>3)</sup>. 이러한 현상은 20세기 이후 의복의 미적 기능이 각 시대별로 추구했던 이상형의 인체를 구현하는 것과 미의 규칙에 따라 인체를 장식하여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거나 형태미를 강조하고자 하던 것에서 나아가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는 파격적인 변형을 가하게 되는 것이다. 패션에 있어서 재현은 인체와 의복구성부분의 관계에서의 시각적 유사성은 물론 기능이 재현을 함께 포함한다. 옷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 시대별로 각 시대가 가지는 인체와 의복에 대한 개념과 기술의 발달 정도에 따라 인체의 모습을 재현하는 방법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 탈 재현 이후의 패션은 인체 부위의 변형과 상호관계성의 해체를 통해 인체의 과장과 축소를 불러왔다. 총체성을 잃고 유기적 구성을 잃어버린 뒤 틀린 기형적인 모습으로 미의 규칙에 저항하고 의복을 통해 인체를 왜곡하여 보여주기도 하며, 부분의 확대와 축소는 근본적으로 모호하고 불확실하여 조화와 통일성의 미학 대신 부조화와 불일치의 미학으로 제시된 의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인체의 왜곡과 과장은 이상형의 인체 재현에 대한 실패의 반작용으로 등장하여 또 다른

인체 부재의 현상을 불러 일으켰다. 실현될 수 없는 이상형에 대한 추구는 패션에 있어 과장이나 축소, 왜곡과 같은 시도를 하게 된다. 해체적 사고 하에서의 패션은 또 다른 ‘존재’를 유도하기 위해 의복의 주체인 인체의 해체와 부재를 시도함으로써 인체와 유리(분리)시켜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또 다른 실체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세이미야케(Issey Miyake)는 형태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넘어서고자 “모양이 없는 모양, 형태가 없는 형태”를 위해 의복을 평면의 상태로 돌려놓아 입체적 인체가 부재한 또 다른 형태의 의상을 창조해 보였다. 인체의 과장과 축소, 인체 부분간의 상호관계성을 단절하여 절대적인 미의 기준이었던 조화와 균형을 파괴하고 탈의인화를 수용하는 비 실체를 등장 시켰다<sup>4)</sup>. 인체의 단순화, 과장된 형태는 대상이 갖는 구성요소들을 생략과 축소시키는 과정을 통해 단순화 시키거나 형태의 일부분을 크고 넓게 확장하고, 또는 형태를 짧게 줄이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한쪽을 실제보다 크게 과장하여 표현하는 방식이다<sup>5)</sup>. 형태의 단순화는 원시조각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현대에 와서 이러한 원시조각의 형태의 단순성과 아집성에 흥미를 갖게 된 조각가로 콘스탄틴 브랑쿠시(Constantin Brancusi)<sup>6)</sup>를 들 수 있다. 브랑쿠시는 인체를 하나의 주체로서 되풀이해서 표현할 때마다 세부와 삭제와 형태의 단순화에 의해 사상적 변화가 왔으며, 그 변화는 형태의 변화를 통해 본질적인 형태에 정신을 집중하는 과정에서 주제(theme)의 핵심을 끌어냈으며, 형태가 단순화되어감에 따라서 작품 속에 들어나는 예술적 사상이 심화되었다<sup>7)</sup>. 예술과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패션에서의 단순화는 최소한의 표현이나 절제된 방식의 의복으로 간결하게 나타내고 불필요한 디테일이나 장식성을 배제하여 의복이 가진 기본적인 기능성조차 해체하고 있다. 패션에 나타난 의복구성의 부분변형은 해체를 통해 재인식 된 인체를 표현하기 위해 ‘변형’이라는 창조적 행위를 하는데 그 표현 방식은 확대(과장), 축소, 단순화, 해체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여기에 형태 변형의 의도를 새로운 기술에 의한 소재의 도입을 통해서 디자이너는 패션을 입는 것 이상으로 표현하려는 끊임없는 추구를 가능하게 한다.

## 2. 변형의 개념과 표현방법 고찰

### 1) 변형의 개념

조형 활동에 있어 디자인이란 일정한 사회적 요구에 의하여 그 목적과 용도에 적합하면서도 아름다운 형태나 색채를 가질 수 있도록 구상하는 것이며 구상한 대로 만드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소비자 개개인의 주관적 미의식을 감안하여 다중(多種) 소량 생산의 시대로 들어서면서 다시 심미성의 의미가 중요시되고 독창성이 강조되는 등 다양하게 변화해 가고 있다. 특히 기능성과 경제성 그리고 심미성 등 디자인의 일반적인 조건들이 향상, 평준화되면서 인간의 본성에 호소하는 유희성도 새로운 디자인 조건의 하나로 등장, 확산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sup>8)</sup>. 조형 활동에 중심이 되는 형태(form)는 인체의 형상과 같이 어떤 사물의 외형을 나타낸다. 그러나 디자이너들은 형태라는 용어를 보다 복합적으로 사용한다. 김미현(2002)<sup>9)</sup>의 연구에서 확대와 과장의 개념을 ‘입체적으로 형태와 부피가 돌출, 팽창되고 길이가 신장된 의복을 의미하며, 이러한 확대와 과장을 통한 의복변형은 인체구조에 있어서도 크기의 확대, 길이의 신장, 면의 확장 등 인체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sup>10)</sup> 고 변형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이수진(2003)<sup>11)</sup>의 연구에서는 변형이란 대상을 시각적 영상으로 충실히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주관에 따라 고의로 왜곡시키거나 과장하는 것으로 안정된 시각적 균형과 단조로운 형태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을 말하며 동적인 미적 효과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변형의 표현 방법을 분해, 단순화, 과장, 왜곡에 의한 변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변형된 의상이 주는 시각적 흥미는 미적 욕구, 자기과시나 성적매력의 강조, 이미지의 변형 등 인간의 끊임없는 욕구는 옷을 통하

여 표현되며 신체연장으로부터의 수직, 수평의 확대로서 비율과피에 의한 조형성을 표현하였고, 더욱 길어 보이고 넓게 보이려는 과장된 인간심리를 반영한 디자인을 시각화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변형'이라는 용어를 정의 하면 어떠한 형태를 규칙에 따라 다른 형태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형태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어떠한 효과를 주느냐에 따라 같은 소재의 주제가 달라지게 된다. 위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변형의 표현 방법에 있어 확대, 축소, 단순화, 해체가 인체와 의복구성부분들의 형태적 조형의지를 반영하는데 중요하게 사용되는 기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2) 변형의 표현 방법

### (1) 확대

확대·과장된 복식은 입체적으로 형태와 부피가 돌출, 팽창되고 길이가 신장된 의복을 의미하며, 이러한 확대와 과장을 통한 의복변형은 인체구조에 있어서도 크기의 확대, 길이의 신장, 면의 확장 등 인체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sup>12)</sup>. 확대의 방법으로는 상, 하, 좌, 우의 변형과 상방과 후방의 확대를 하는 방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길이가 강조되는 수직적 확대와 폭이 커지고 그만큼 면적이 넓어지는 수평적 확대, 볼륨과 공간 형성의 원형적 확대, 일정한 부위의 강조하는 부분적 확대로 구분 할 수 있다<sup>13)</sup>.

### (2) 축소(abridgment, reduction)

축소에 의한 방법은 확대의 의미와는 반대로 상, 하, 좌, 우, 전면, 후면의 축소(縮小)를 의미하는 것으로 모양이나 규모 따위를 줄여서 작게 함을 말한다. 예를 들어 버슬 스타일의 경우 엉덩이를 확대 강조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가슴 아래 몸통부위와 아랫배 부분을 납작하게 만드는 경향도 이러한 축소의 예라 할 수 있다. 인체의 부분 중 축소가 대표적으로 이용된 부위는 허리부분으로 코르셋을 이용한 조임을 통해 가

는 허리는 더욱 가늘게 조이는 것도 마찬가지로의 경우이다. 또한 중국의 전족은 여성의 발을 작게 조여 발의 기형화를 불러왔지만 그들의 미적인 의식에는 작은 발이 미의 척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축소의 행위는 인체의 왜곡을 통해 직접적인 변형을 시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 (3) 단순화

패션에서의 단순화는 미니멀리즘(minimalism)이란 용어로서 되도록 소수의 단순한 요소로 최대 효과를 이루려는 사고방식이다<sup>14)</sup>. 단순함과 간결함을 추구하는 예술과 문화적인 흐름으로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시각 예술 분야에서 출현하여 음악, 건축, 패션, 철학 등 여러 영역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소한도의, 최소의, 극미의' 라는 minimal에 'ism'을 덧붙인 미니멀리즘이라는 용어는 1960년대부터 쓰이기 시작했다.

패션에 있어서 장식적인 디자인을 가능한 제거한 심플한 디자인이나 직선적인 실루엣의 선정적인 옷, 또는 최소한의 옷으로 훌륭한 옷차림을 연출하는 방법 등이 모두 미니멀리즘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 (4) 분해 또는 해체

플라톤 이래 서구 철학의 이분법적 전통에 전면적으로 도전하여 재연, 분산, 보충, 상호 텍스트성을 제시한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에 의해 시작된 20세기 중반 이후 문학 분석 운동을 서술하는데 처음 사용된 용어이다<sup>15)</sup>.

해체주의와 패션과의 관계는 문자 그대로 봉제선이 떨어져 나가고 소매가 분리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데리다가 주장한 구조적인 기존의 모든 고정관념을 거부하여, 의복과 관계된 모든 것들 자체가 부서지고 다시 상상되고 실험되는 것을 말한다<sup>16)</sup>.

해체전략의 목표는 현전(現前)의 형이상학을 좌절시키고 그 의미의 체계를 전복하는 것이다. 즉, 패션에 표현된 해체주의 조형양식의 개념 및 특성을 노출(disclosure)적 표현과, 파괴와 빈

근적 표현이라 정의하고 있다<sup>17</sup>). 가와쿠보의 패션에 대한 접근 방법인 “無에서의 출발(to start from zero)”<sup>18</sup>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해체주의 복식은 기이한 아이디어로 의복의 구성적 요소들을 분해하고 해체하여 재구성함으로써 기존 관념에 대한 반발을 시도하였는데, 에로티즘·시스루(see through)·란제리룩으로 표현되는 노출, 히피·펑크·키치(kitsch)로 표현되는 파괴, 그런지(grunge)·빈티지(vintage)·정크(junk)로 표현되는 빈곤, 패러디로 표현되는 탈구성, 추한 미로 표현되는 모호성, 성(性), T·P·O로 표현되는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해체 형식을 보인다<sup>19</sup>). 적절하게 인체를 피복하는 것은 일반적 의미의 옷으로써 그 기능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체에서 시작된 의미의 옷은 의복을 구성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시 미적인 형태로 재조합되는 복잡한 과정을 통해 작가의 심상을 자유롭게 재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그 표현의 방식이 과격하게 나타나는 과정일 뿐 인체의 부분들을 무시하거나 옷과 인체를 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단지 그 형식이 일정한 규칙이 없고 표현의 방법이 의외성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 III. 인체와 의복구성에 표현된 디테일 변형

가장 관능적이고 직접적으로 우리의 흥미를 끄는 대상물인 인체의 각 부위마다 기능마다 주는 느낌이 다르겠으나 서로 어색하지 않게 연결된 골격과 근육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표현된 굴곡의 변화에 의해 미적 충동을 얻게 된다<sup>20</sup>).

인체의 아름다움을 추구(追求)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시대부터였고, 이것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루어졌다<sup>21</sup>). 그리이스인은 완전 나체를 찬미하였으며 정신과 육체가 하나라고 생각하였고 추상적(抽象的)인 관념에다 감각적이고 구체적인 인간적인 형태를 부여하였다<sup>22</sup>). 신체적 재현이 부재한 의상이나 전통적 인간 형상에서 이탈한 여러 표현 형태의 의상은 더 이상 신체의 존

재를 대리하는 이미지가 아님을 주장하게 되었다. 변형은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 대상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규범적인 것을 부정하고 예상을 뒤엎기 위해 예술가는 변형을 하게 된다<sup>23</sup>). 인체의 전체적인 외곽선은 실루엣이라는 각각의 특징들로 형태(shape)를 만드는 것이다. 실루엣은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그 의상을 바라보는 것으로, 의상으로부터 받는 최초의 인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권기영·조필교(2003)<sup>24</sup>)의 연구에서는 현대패션에서 보여지는 신체이미지를 성, 인종, 자연, 기술로 나누어 분석한 것들에서 도출한 신체 이미지의 상징성을 탈경계성, 해체성, 불확실성, 가상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체를 대상 그대로 표현하기 보다는 조형화하는 도구나 매개체를 이용하여 직·간접적으로 변형을 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복식의 척도가 인체와 복식이 통일적인 전체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분 없는 전체는 없으므로 전체의 조화는 부분의 특성이 중요하다<sup>25</sup>). 의복의 구조적 디자인은 착의기체(着衣基體)가 되는 인체와의 조화, 그리고 의복 자체의 순수한 미적 가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그러므로 인체 구조적 중심이 되는 인체의 부위는 목, 어깨, 팔, 등, 가슴, 허리, 엉덩이로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의복 구성의 조형부위별 패션디자인에 표현된 확대, 축소, 단순화, 해체가 표현된 변형의 조형적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 1. 네크라인

네크라인은 칼라와 같이 얼굴에 가장 가까운 부분으로서 네크라인의 형태는 얼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크라인을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나타나는 분위기에 차이가 있어 이러한 조형적인 장식의 표현은 여러 가지 표현 방식에 따라 다양한 미적 효과를 나타나게 된다. 미안마의 여인들은 길고 가는 목을 선호하여 <그림1>과 같이 여러 개의 링을 착용하여 조금씩 목이 늘어나게 한다. <그림2>는 현재는 크리스찬 디올의 작품으로 여러 겹의 목걸이를 통한 강조와



<그림1> 미얀마 여인의 네크라인 장식. (<http://www.fathom.com>)  
 <그림2> 화려한 네크라인 장식.('97 S/S 크리스찬 디올 꾸뛰르)

더불어 상체부위를 누드로 노출하면서 여분의 목걸이를 자연스럽게 연출하여 마치 드레이프된 하이넥 블라우스의 효과를 가지게 된다. 수직적 확대의 방법은 상대적으로 목 부분의 왜곡(축소)을 통해 길이의 증가를 보이면서 아슬아슬한 높이의 현상을 보이니, 수평적 확대의 방법은 인체를 직접변형이 아닌 장신구에 의한 효과만을 표현하여 자연스러우면서도 어깨 부위가 상대적으로 넓어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 2. 칼라

목 부위의 칼라는 네크라인에 별도의 천으로 만들어 하나의 형태를 이룬다. 따라서 네크라인과 칼라의 형태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칼라의 역할은 기능적인 면과 미적인 것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칼라는 그 시대의 여러 특징을 함축시킨 특성을 지니게 되는데 이것은 시대의 조형의



<그림3> 목부터 소매부분까지 확대된 칼라. ('97 F/W 크리스찬 디올 꾸뛰르)  
 <그림4> 베개 형태의 오브제를 칼라로 해석. ('05-'06 F/W Paris Milan 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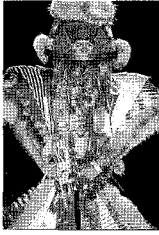
특징으로 미의식의 반영체라 하겠다<sup>26)</sup>. 부분적 확대 변형의 방법으로 확대 변형된 칼라인 <그림3>는 테일러드 재킷의 윗 칼라의 부분이 목 부분부터 세워지고 확대되어 어깨와 팔꿈치 부분까지 덮고 있는데 직선적인 솔 형태로 모던하게 나타나는 도형적인 심플함을 느끼게 하는 결합법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특이한 형태적 확대 변형의 모양은 부풀려진 베개 모양의 폭신함을 가진 칼라인데 이것은 칼라의 형태를 암시하는 오브제로서 취침용 베개모양이거나 혹은 푸근한 방식 모양의 형태로 목의 뒷부분에 덧대어 누워있는 모습을 형상화하기도 한다<그림4>.

## 3. 상의류 및 원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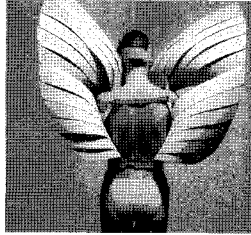
어깨가 지닌 미적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앞과 뒤가 연결되어 어깨부위로 연장된 의복인 상의류와 원피스류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어깨는 인체에서 수평적인 균형을 나타내는 부위로 그 경사나 모양에 따라 원래의 각이 주는 느낌은 전체적인 의복의 외관에 정적인 느낌을 표현하지만, 그 형태가 조금만 변화가 있어도 의복 전체의 느낌은 어깨의 모양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그림5>와 같이 무게의 중심이 어깨로 옮겨가는 극단적인 과장성은 인체를 전체적으로 도식화하여 균형 잡힌 모습의 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역설적인 힘을 표현하는데 주안점을 두게 된다.

수직적 확대를 통한 변형은 <그림6>과 같이 어깨의 각진 부분이 위로 솟은 듯한 표현의 방법이 극에 달하여 뾰족한 뿔의 형태를 더욱 강조하는 오브제로 형상화하여 야수적인 정글의 느낌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림7>은 'desire of wings' 으로 아름다움과 힘과 욕망의 상징인 나무날개는 알렉산더 맥퀸 컬렉션에 소개되었다. 이러한 오브제를 엮는 방법은 의복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을 다른 소재로 대신하여 극한의 방법으로 확대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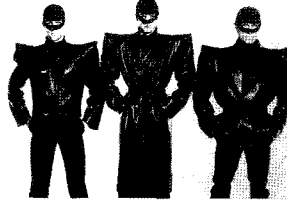
원피스 형태에 나타난 변형의 표현으로써 <그림8>은 등의 형태변형을 피한 것으로 요지 아마모토는 1996년 A/W에 발표한 드레스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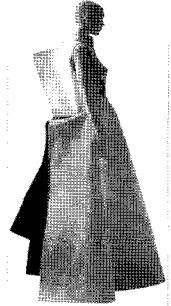
<그림5>  
역삼각형 실루엣으로  
확대된 어깨.  
(2001 크리스찬 디올 꾸뛰르)



<그림6>  
'Desire of wings' 아름다움과  
힘과 욕망의 상징인 나무날개.  
(알렉산더 맥퀸 컬렉션)



<그림7>  
어깨를 강조한 파워어 룩.  
(피에르 가르델 1979)



<그림8>  
등과 엉덩이를 확대 과장  
변형. (요지 아마모토  
1996년 A/W)

과 엉덩이 등을 과장해 몸 전체를 재인식하도록 했다'는 평을 받았다.

#### 4. 소매

팔의 기능과 소매는 인체에 팔이 연결되어 있듯이 의복의 몸판에 봉제로서 연결되어 있다. 소매구성은 '정지'의 상태에서 미적인 면과 '움직임'의 상태에서 기능성을 복합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sup>27)</sup>. 또한 장식적 의미에서 소매의 형태는 의복 전체적인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퍼프(puff)를 이용한 독특한 변형은 어깨에서 소매로 연결되는 부위를 확대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림9>는 퍼프 슬리브(puff sleeve)를 응용한 부분적 확대변형으로 부풀려진 소재들이 불규칙한 모양으로 표현되고 있다. 과도한 부풀림은 형태를 분간하기 어렵게도 한다<그림10>. 또

한 소매부분에 여러 색상으로 층층으로 덧대어진 소매는 시각적인 강조점을 만들기도 한다<그림11>. <그림12>는 팔 굽 아래 부분을 극대화하여 스커트의 도련만큼 확대된 소매로 드레이프를 한 팔 굽 길이의 짧은 드레이프드 엘보우 슬리브(draped elbow sleeve)는 이상향을 추구한 낭만주의적 표현으로 양의 다리 형 소매(leg of mutton sleeve)로도 나타난다. 윗부분이 꼭 끼는 소매부분과 극단적으로 부풀려진 소매부리 부분은 상대적으로 극적인 변형의 표현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 5. 브래지어

브래지어의 모양은 디자인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으나 특히 가슴의 높이·위치 등은 그 때에 유행하는 실루엣에 의해서 좌우되는 일이 많



<그림9>  
부풀려진 퍼프소매.  
(크리스찬 디올 '04 S/S Paris &  
Milano Collection)



<그림10>  
여러 개의 러플과  
뿔침대가 들어간 소매.  
( '04 크리스찬 디올 꾸뛰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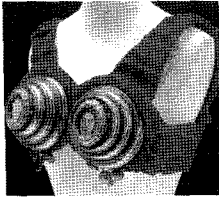
<그림11>  
층층으로 확대 구성된 소매.  
( '04 크리스찬 디올 꾸뛰르)



<그림12>  
과도하게 확대된 소매부리.  
(2004 S/S 크리스찬 디올 꾸뛰르)



다. 여성의 가슴은 유방으로 인하여 모성애, 파스함, 안정 등의 심리적 감정을 표현한다. 여성의 유방은 돌출을 향한 끊임없는 욕구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인체의 부위가 되고 있다. 용수철 모양의 유방은 예술작품의 장르로써 유희적인 표현을 하는데 충분한 영감을 주기



<그림13>  
예술적 표현의 용수철 브라  
(Felicitas Bachmann. 1994. WASCHE)



<그림14>  
큰 브라.  
(1984, F/W 장 폴 굴티에)

도 한다<그림13>. 1950년대 3D 개념에 의해 제작된 브라는 1994년에 뾰족하게 돌출되는 입체적인 개념의 브라로 발전되는 계기를 가져왔다. 뾰족하게 왜곡되는 과격한 형태로의 극단성은 장 폴 굴티에의 디자인에 잘 나타나 있는데 왜곡된 여성의 성 정체성을 역설적으로 확대, 돌출시켜 강조 하고 있다<그림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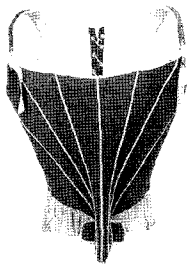
### 6. 코르셋

코르셋은 허리를 축소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기능적인 면으로는 하의를 입어 고정시키는 위치로 되어 제2의 어깨 역할을 한다. 예전에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 이것을 앞뒤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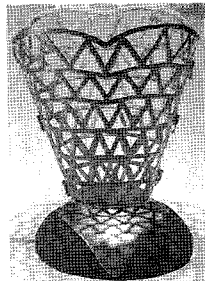
끈으로 줄라매는 형식의 것이었으나, 소재의 개발이 진전된 현재는 하나로 간편화되었다.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남성들은 여성의 허리 대비 엉덩이의 특정한 비율에 특별한 매력을 느껴 왔다. 여성의 곡선적인 유연함을 살리는 코르셋은 현대에도 에로틱한 스타일을 만드는데 중요한 아이템이 되었다. 바디는 뾰뾰하게 만든 두 조각의 천을 경첩으로 이은 물건이었는데 ‘스테이즈(stays, 심)라고 알려진 얇은 널조각이나 고래뼈를 넣어서 보강했다<그림15>. <그림16>은 강철로 만든 19세기의 메탈 코르셋으로서 통기성을 위한 계획적인 설계로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메탈이 가진 강력한 조임은 디자이너에게 부드러운 옷감위에 역설적인 속박을 상징하는 금속성의 액세서리로 이용되었다<그림17>.

### 7. 뷔스티에(bust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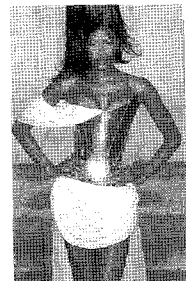
뷔스티에는 브래지어와 코르셋이 연결된 형태의 여성용 상의로 가슴 부분에 브래지어처럼 컵이 달린 상의로 허리까지 이어진 형태를 말한다. 어깨끈이 없는 드레스를 착용한 인체에서 나타나는 융기는 ‘성적인 유혹’과 함께 ‘여성의 힘 과시’라는 이중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뷔스티에를 이용하여 속옷을 겉옷화한 것만으로도 과격적인데 여기에 시각적인 강조점을 두는 여성의 유방을 콘 형태로 단순화하여 간결하면서도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러한 란제리 룩은 마돈나가 장 폴 굴티에(Jean Paul Gaultier)의 브래지어와 코르셋 그대로인 것 같은 무대의상의



<그림15>  
1760년대 Mechthild의 코르셋.  
(Felicitas Bachmann. 1994. WASCHE)



<그림16>  
19세기 메탈 코르셋.  
(Vogue Korea Jan 2002)



<그림17>  
메탈 코르셋을 응용.  
(1997 S/S 지방시 꾸뛰르)



<그림18>  
핑크색의 콘 모양 뷔스티에의 마돈나.  
(양숙향외. 2006. 패션20세기)



<그림19>  
Gaultier의 토르스 모양의 향수병.  
(Felicitas Bachmann. 1994. WASCHE)



<그림20>  
철사로 제작된 뷔스티에.  
(1992 준코 고시노)

새로운 스타일로 가슴에 시선이 향하도록 디자인 되었다<그림18>. 이와 같이 골티에는 향수병 디자인에도 콘 브라 드레스를 입은 여성의 인체를 토르스 형태로 제작하였다<그림19>. <그림20>은 1992년의 준코 고시노의 뷔스티에로 블랙의 의상과 흰색 철사를 이용하여 여성의 인체 앞부분을 M자 모양으로 돌출되어지게 변형하여 솟아오른 가슴의 산을 부분이 아닌 바디스 앞부분에 물결치듯 금속성의 철사 소재를 변형하여 예술적으로 표현하였다.

의 부분들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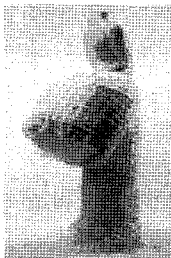
둥근 반원형의 엉덩이 모양은 기하학적인 원통형으로 확대 변형되어 은유적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가와쿠보 레이의 sweater, skirt는 엉덩이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스커트 도련까지 짝 차게 부풀려진 타원형으로 변형되어 의복사이의 공간성을 두지 않기도 한다<그림21>. 이러한 파니에는 좌우로 확대되는 형태로 변형되어 과거 무겁고 거대한 길이의 스커트는 미니 길이로 경쾌함을 주기도 한다<그림22>.

8. 스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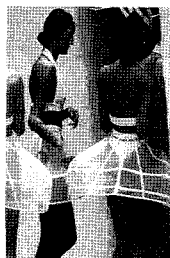
오늘날 엉덩이는 성적으로 강렬한 욕망을 담고 있어 미적인 관심의 과장된 표현을 위해 특수한 심 넣기나 여러 장치들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과장시키기도 하였다. 엉덩이를 강조하고 부풀려 표현하는 것은 가슴 부위와 마찬가지로 풍만한 미적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지나친 심리적 의지로 과도하게 부풀려졌던 대표적인 인체

9. 팬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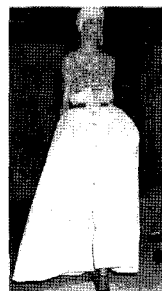
팬츠는 바지의 총칭으로 그 시대의 유행에 따라 트라우저즈(trousers), 슬랙스(slacks) - 스포티한 바지, 트라우저(trousers) - 상하 한 벌의 양복에서 예복용 바지, 쇼츠(shorts), 트렁크스(trunks), 팬탈롱(pantaloons)등으로 불린다. 넓게 퍼지는 형태



<그림21>  
원통형으로 강조된 엉덩이. (1995 A/W 가와쿠보 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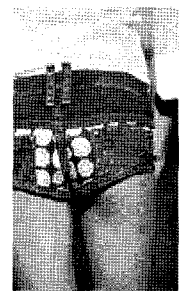
<그림22>  
스커트를 부풀리기 위한 파니에. (Conde Nast. 1996. VOGUE(Italia) Mar)



<그림23>  
타이트한 상의와 과도한 크기의 바지부리. (Christian Lacroix)



<그림24>  
스커트 모양의 파라조 팬츠. ('04 S/S Paris & Milano Collection)



<그림25> 엉덩이가 보일 듯 짊어진 팬츠. (Dsquared, '05 S/S Collection)

의 팬츠는 타이트한 상의와 반대로 스커트로 착각하게끔 넓어지기도 한다(그림 23). 밑으로 길게 쳐진 밑위를 가진 파라조(palazzo) 팬츠는 넉넉한 힙에서 단으로 갈수록 확대된 여유 있는 형태 편안함과 더불어 확대된 바짓부리의 형태를 강조하여 스커트 아래를 양쪽으로 갈라 오므려 이어놓은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그림24>. 엉덩이가 보이도록 극도로 짧아진 팬츠인 <그림25>는 앞뒤의 밑위 길이가 짧아진 로 라이즈 형태로 축소되고 단순화 되어 과도한 노출이 되도록 변형되었다.

조작을 위한 구조적인 설계의 패턴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패션에 있어 외관의 조형적 의지는 확대, 축소(왜곡), 단순화, 분해(해체)라는 도구를 통해 의복의 외형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한다면 이러한 외관의 조형적 의지는 결국 디자이너의 주관적인 심상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다. 이와 같이 패션에 나타난 의복 구성부위의 변형의 외적인 조형의지의 특징을 형태와 소재의 변형, 의복구성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심미적 영감의 의지가 발현되는 내적인 근원을 탈 신체에 의한 변형, 탈 시대 및 문화에 의한 변형으로 나누어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 IV. 패션에 표현된 의복구성의 변형의 방법과 특성

의복을 구성하는데 있어 다양한 변형의 표현은 과학적이고 세밀한 패턴의 절개와 확장 및 커팅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확대에 의한 패턴의 전개는 기본 슬리브 패턴에 확장하고자 하는 부위를 정하고 그 부분을 절개해서 벌리거나 미리 턱(tuck)이나 개더를 만들어 패턴을 올려 재단하여 만들어지게 된다. 단순화의 경우에는 디자인에 필요한 부분만을 정하고 나머지는 삭제하여 제작하게 된다. 해체의 경우는 미리 만들어진 의복을 찢거나 분해할 부분을 미리 계획하여 패턴을 만들기도 한다. 이와 같이 외적인 변형을 가능하게 하는 데는 다양한 형태의

##### 1. 외적인 조형의지의 변형

###### 1) 형태의 변형

형태를 변형하는 외적인 방법은 확대, 축소, 단순화, 해체를 의복구성 부위를 다양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의복의 조형부위는 <표1>과 같이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변형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복의 구성 부분들을 조형적으로 확대, 축소, 단순화의 과정으로도 나타낼 수 없는 새로운 요구는 의복을 찢거나, 분해하여 새로운 창작품을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패션의 작업들은 해체주

<표1> 의복의 조형부위별 변형의 표현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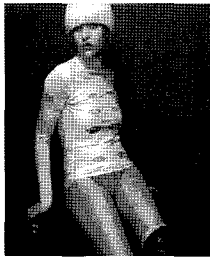
안체부위	목	어깨	팔	등	가슴	허리	엉덩이
의복구성부위	네크라인, 칼라	상의류	소매	상의류	브라, 뷔스티에	코르셋	스커트, 팬츠
확대에 의한 변형의 표현방법	리플, 주름, 과도한 장식	주름, 패드, 기하학적인 콘모양	주름, 크기의 과장	부풀림, 기하학적인 형태로의 과장	기하학적인 콘모양	-	크기와 길이 및 형태의 확장, 파니에
축소에 의한 변형의 표현방법	파타용	-	레그 오브 머튼소매와 밀착성	-	-	조임, 소재의 가학성	밀착성
단순화에 의한 변형의 표현방법	-	삭제에 의한 국소부위표현	삭제	삭제	국소 가림	-	-

의적인 모습이나 누더기 같은 빈티지 룩 들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조형의지는 외적으로 불완전 하면서도 고정관념을 깨는 독특한 이미지를 전달하게 된다. 변형의 조건이 가능한 한 최대한 자유롭게 비정형의 형태로 변화를 주게 되는데 크기와 형태가 다양하게 표현된다. 다양하

광범위하게 시도 될 수 있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2) 소재의 변형

기계기술의 발달에 따른 대량 생산적 환경과 기능주의 철학에 입각한 새로운 개념의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꾸기 시작하여 확대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엽부터이다. 패션에 영감을 주는 근원인 소재의 발달은 디자이너의 감성적인 표현을 자유롭게 나타내는데 필요한 디자인 표현의 도구였다. 원시부족들의 의복 재료로 사용된 자연재료들은 시대를 거듭하면서 과거에는 의복재료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던 금속성 원료와 플라스틱 등 합성소재의 개발로 그 외형의 이미지가 자연에서 미래로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전환점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기술의 발전에 의한 신소재가 아니더라도 의복에 이용될 수 없는 소재를 활용한 디자인은 상식을 깨는 의복의 신소재 일 수도 있다. 이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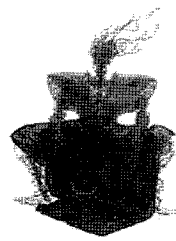


<그림26> 일정한 규칙에 의한 바디스 부분의 해체. (Terry Jones & Avril Mair. 2002. FASHION NOW)



<그림27> 네크라인, 바디스, 소매 부위 등에 나타난 수평적 해체. (Terry Jones & Avril Mair. (2002). FASHION NOW)

게 해석된 해체의 변형 표현은 <그림26>에서와 같이 다소 규칙적으로 해체가 이루어진 모습은 나름대로 안정감을 주지만 단순한 디자인의 티셔츠에 있어서 일상적인 틀을 깨고 새로운 이미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좀 더 파괴적인 해체가 이루어지는 과정인 <그림27>은 불규칙하게 찢겨진 인위적인 행위를 통해 남겨진 여분의 조각들을 묶어서 나타나고 있다. 즉, 네크라인 부분에 남아 있는 밴드의 부분과 가로로 묶여져 반복되는 가슴부위까지 연장되고 횡적인 규칙을 만들어 가면서 가로로 노출되는 인체의 부분들의 완급을 통해 인체의 부분을 상상하고 기대하는 묘한 충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해체에 의한 변형은 작가의 조형적 감성에 의해 좌우되어 똑같은 모양으로 변형된 의복이라 하여도 입는 사람의 체형과 착용방법에 의해 또 다른 디자인으로 변할 수 있는 개성적인 디자인이 되는 것이다. 즉, 해체의 묘미는 의외성과 우연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속적인 행위이며 의복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려는 일탈성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해체에 의한 변형은 의복이 제작되기 전의 계획적인 의도이든 의복이 완성된 후이든 간에 여러 부위에서



<그림28> 이세이미야케의 Rattan Body (1982). (양속향 외 2인. 2006. 패션20세기)



<그림29> 헬무트 랭의 기하학적 커팅 법과 100% 유리섬유로 제작된 원피스(1990). (양속향 외 2인. 2006. 패션20세기)

한 예로 <그림28>의 바구니를 만드는데 쓰이는 라탄(rattan)을 이용한 바디 모양등의 파격적인 재료가 사용되었다. 최근 과학적인 신소재로서 항공기를 만드는 재료는 가볍고 견고함이 특징인데 이러한 산업용의 소재를 사용하여 헬무트 랭(Helmut Lang)은 기하학적 커팅법과 100% 유리섬유로 제작한 미래적인 느낌의 원피스 드레스의 뒷부분을 절개하여 망사가 튀어나오도록 구성하였다<그림29>.

<표2> 의복 부분에 따른 변형표현 방법 및 의복구성상의 특징

의복구성 부분	변형 표현의 방법	의복구성상의 특징
네크라인 칼라	확대 길이연장	- 목둘레의 세움분과 칼라도련의 증가를 고려
어깨, 등	확대 보정물 사용	- 어깨를 요크로 따로 제작, 보 - 정물인 패드와 뺨침대를 삽입하기 위한 소매산의 절개와 퍼프양의 증가
	확대 해체	- 뒤 중심선 절개와 좌우로 젖혀진 패턴을 어깨 끝점에서 등굽선 까지 사선으로 절개하여 벌림. - 중심 목선에서 치마의 끝 쪽까지 사선으로 플레이 분을 줌. - 등의 굽은 형태와 허리의 들어간 부위에 고정이 됨으로써 생기는 여분의 분량은 가로의 다투로 처리
소매	확대 축소 (상대적 밀착성)	- 퍼프 소매 - 웨어링소매 - 레그 오브 머튼 소매 - 진동둘레를 허리둘레로 인식하고 플레이어를 주어 보정물 삽입
브래지어	확대	- 콘의 구조적인 방사형 절개와 나선형으로 감아서 제작.
코르셋	허리 축소	- 프린세스라인을 절개 한 패널, - 경직된 세움을 위한 와이어나 고래뼈의 삽입
뷔스티에	허리 축소 유방 확대	- 토르소 원형의 활용
스커트	확대	- 빠니에와 공간을 채우는 보정물
팬츠	확대 축소(밀착성)	- 횡선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축소, - 밑위길이의 위치 전환

3) 의복구성의 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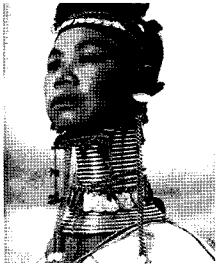
의복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변형을 주도하는 디자이너의 감각을 효과적으로 표현 할 수 있는 각 부분별 변형표현방법과 의복구성상 특징을 <표2>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내적 조형의지의 변형

1) 탈 신체에 의한 패션의 변형

인류가 복식을 착용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연구하여 온 학자들은 인간의 자기도취증(narcissism), 즉 자신의 신체를 아름답고 매력 있게 장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쁨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가장 강하고 근본적인 동기로 보고 있다. 인류는 엄청난 신체적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인체를 장식하여 왔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인체 장식은 기후, 자원, 기술 등에 따라 채색이나 문식과 같이 몸에 직접 장식하는 방법, 장신구로 장식하는 방법, 의복으로 장식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시대와 문화권에 따라서 신체장식방법과 미의 기준에는 차이가 있으나 인체를 장식하고자 하는 욕구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생활의 여유가 있는 현대인에게서 오히려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파타웅이라는 낯선 목걸이를 사용하여 목의 길이를 늘이는 행위가 현대 디자이너에게는 간접적인 형태 변형의 요소로써 인체 부위에 감겨지는 목걸이나 기타 장식의 표현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직접적인 변형을 가하는 장식방법에는 상흔(cicatrication), 문신(tattooing), 채색(painting), 제거(mutilation), 변형(deformation ; body-plastic) 등이 있다. 신체장식의 대표적인 방법은 오랜 기간 신체를 변형하는 것인데 <그림 28>과 같이 수많은 금속 목걸이를 끼워 목을 길게 변형시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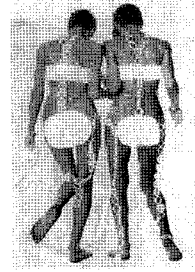
<그림30>  
파타용을 착용한 동버마  
미얀마의 여인.  
(Vogue Korea Jan 2002)



<그림31>  
크리스찬 디올의 꾸뛰르의  
허리를 감는 장식을 응용.  
(\* 97 디올 꾸뛰르)



<그림32>  
자이로 맘베투 원주민들의 고유의상  
(www.arthistory-archaeology.umd.edu)



<그림33>  
엉덩이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디자인 (오희선 2002, 재미있는  
패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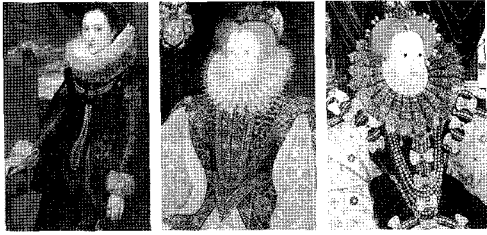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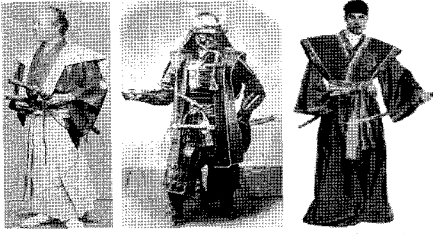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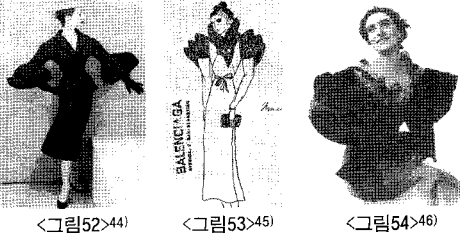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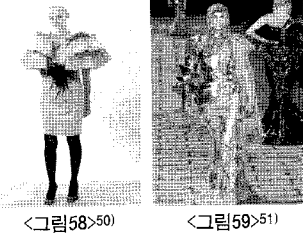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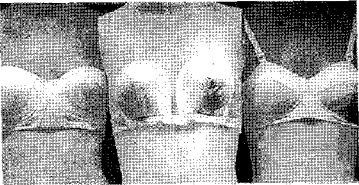

나타내기도 한다. 크리스찬 디올과 장 폴 고티에는 이러한 감는 장식의 영감에 착안하여 여성의 허리 부분을 가늘게 강조하는데 있어 유방의 바로 아래까지 높게 감아주어 새로운 소재의 니퍼(nipper)로 형상화하여 더욱 예술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그림29>. <그림30>의 자이로 맘베투 원주민 여성들의 고유의상에서도 단순한 타원형의 나무판으로 엉덩이를 가리는데 이러한 엉덩이를 강조하여 단순화하는 변형의 영감을 바탕으로 현대에는 가장 단순화된 도형을 적용시키는 비키니의 형태로써 엉덩이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디자인으로 변형되어 나타난다<그림31>. 신체장식은 문화가 발달됨에 따라 자연 상태의 신체를 보다 존중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어 왔다. 현대에는 자연의 형태를 파괴하는 것보다는 자연의 형태를 보존하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주된 흐름이다<sup>28)</sup>. 이러한 탈 신체 변형의 욕구는 현대 디자이너들에게 있어 서구화된 문명에 반기를 들듯이 새로운 미적 감흥을 주는데 충분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자연과의 새로운 만남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데 시각적 환기와 더불어 시대의 트렌드를 이끄는 에스닉 룩(ethnic look)과 아프리카 풍, 인디언풍 등의 이국적인 패션으로 다시금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원시 부족과 인체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인체가 옷이요 변형을 위한 도화지로 쓰이며 자신의 몸과 관습에 맞도록 변형되어지는 강

력한 도구로 쓰이기 때문에 미적인 표현이 다소 낮설기도 하지만 어쩌면 의복을 입혀 구성되어지는 인위성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인체를 조형하였고 20세기 이후 패션에서는 탈 신체에 의한 재인식을 통해 의복구성부위의 변형을 시도하고 새로이 인체를 재해석하고 있다.

2) 탈 시대 및 문화에 의한 패션의 변형

20세기 이후에 새롭게 제시한 인체에 대한 해석은 신체관의 고정적인 틀을 부수는 것으로 의복의 기능성이 부재되고 인체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의복의 미적 개념에 혼란을 일으키며 성적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는 의복을 등장시켰다. 과거에도 과장과 왜곡을 하는 의상이 있었다할지라도 이는 당대의 시대적 패러다임에 의해 인체를 재현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였으므로 오늘날의 의상과는 차별화 된다. 이것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일반적인 문화적 정서에 반발하여 나타나는 탈 시대 및 문화에 의한 패션의 변형으로 나타나게 된다. 사람들이 추구하던 미적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 역사적으로 복식으로 표현한 인체의 조형미가 시대에 따라 다른 것을 보았을 때, 의복을 통하여 추구하던 미적 개념이 시대별로 다르게 존재한 것을 알 수 있다. 복식사적 면에서 의복의 상징성은 그 시대의 미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인체의 부분들

<표3> 탈 시대 및 문화에 의한 과거 복식의 현대적 재해석

인체 부분	역사적인 구성	탈 시대 및 문화에 의한 현대적 재현
목	 <p>&lt;그림37&gt;29)      &lt;그림38&gt;30)      &lt;그림39&gt;31)</p> <p>권위와 계급의 상징인 러프칼라</p>	 <p>&lt;그림40&gt;32)      &lt;그림41&gt;33)      &lt;그림42&gt;34)      &lt;그림43&gt;35)</p> <p>과도한 러플과 주름을 의복 각 부위에 대입</p>
어깨	 <p>&lt;그림44&gt;36)      &lt;그림45&gt;37)      &lt;그림46&gt;38)</p> <p>위압감을 주는 어깨의 확대</p>	 <p>&lt;그림47&gt;39)      &lt;그림48&gt;40)      &lt;그림49&gt;41)</p> <p>극단적인 의복구조의 확대와 화려한 디테일장식</p>
소매	 <p>&lt;그림50&gt;42)      &lt;그림51&gt;43)</p>  <p>&lt;그림52&gt;44)      &lt;그림53&gt;45)      &lt;그림54&gt;46)</p> <p>소매산을 부풀리는 퍼프소매</p>	 <p>&lt;그림55&gt;47)      &lt;그림56&gt;48)      &lt;그림57&gt;49)</p>  <p>&lt;그림58&gt;50)      &lt;그림59&gt;51)</p> <p>퍼프소매의 기학적인 확대변형 및 과거 전사의 이미지를 재해석</p>
가슴	 <p>&lt;그림60&gt;52)</p> <p>유방을 보정하는 속옷인 브래지어</p>	 <p>&lt;그림61&gt;53)      &lt;그림62&gt;54)</p> <p>속옷의 겉옷화, 성정체성의 극단적 표현</p>

인체 부분	역사적인 구성	탈 시대 및 문화에 의한 현대적 재현
허리	 <p>&lt;그림63&gt;<sup>55)</sup>   &lt;그림64&gt;<sup>56)</sup>   &lt;그림65&gt;<sup>57)</sup>   &lt;그림66&gt;<sup>58)</sup></p>	 <p>&lt;그림67&gt;<sup>59)</sup>   &lt;그림68&gt;<sup>60)</sup>   &lt;그림69&gt;<sup>61)</sup></p>
코르셋, 뷔스티에		겉옷화 된 코르셋과 s라인의 에로틱한 재현 및 인체의 해부학적 묘사
영덩이	 <p>&lt;그림70&gt;<sup>62)</sup>   &lt;그림71&gt;<sup>63)</sup>   &lt;그림72&gt;<sup>64)</sup></p>	 <p>&lt;그림73&gt;<sup>65)</sup>   &lt;그림74&gt;<sup>66)</sup>   &lt;그림75&gt;<sup>67)</sup>   &lt;그림76&gt;<sup>68)</sup></p>
스커트		좌우로 확대된 영덩이와 버스를 위한 구조의 해체와 재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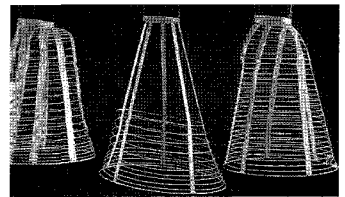
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확대 및 과장하고 축소 변형하는 구조적인 부분이었다가 20세기 이후 디자이너들에게 패션디자인의 원천으로 응용되는 심미적 재해석의 관점으로 표현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의복은 인체를 감싸는 대상으로 각 시대를 지배하는 철학, 예술, 가치관 등에서 규정하는 이상적 인체 이미지에 맞게 변형 제작되어 왔다. 헤르만 로체(Herman Roche)는 복식이 우리들의 실제 몸 부위 부위에 붙어 실제 이상의 강력한 느낌을 주고 보다 큰 공간을 점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복식은 우리의 두 번째 몸이며 에라스무스(Erasmus)의 표현을 빌자면 몸의 몸이라고 할 수 있다. 바르트(Roland Barthes)는 순수한 감각성으로서의 몸은 기호화할 수 없으며, 복식을 통해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sup>69)</sup>. 인체와의 관계에서 의복이 지니는 이러한 위상은, 결국 패션을 통해서 인체가 투사하는 내적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음을 뜻하고 인체가 지니는 내적 의미를 서양복식의 역사적 흐름에 따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자연스러운 조화를 중시하는 그리스인들은 인체의 부분노출과 의복의 조화를 표현의 위상으로 삼아 하나로 인식하고 있

다. 중세에는 기독교의 금욕주의에 의하여 몸을 완전히 감싸고 드러나지 않는 종교적 상징의 의미만이 두드러졌기에 복식에서는 성의 구분이 보여 지지 않으며 인체의 노출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중세말기 고딕시대로 넘어가면서 인체의 형태에 맞는 입체적인 의복구성이 가능하게 되었고 여성의 데콜타주 된 V네크라인과 남성의 바지 착용은 복식에서의 성차를 뚜렷이 보이게 된다. 지방시(Givenchy)는 ‘On the cape Givenchy’s Gothic get up’에서 형태는 중세의 금욕적인 느낌

을 그대로 살리고 있다<그림32>. <그림33>의 19세기말 스커트를 부풀리기 위해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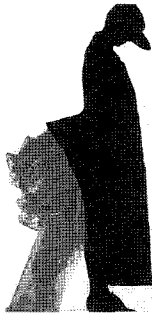
<그림34> 풍성하게 주름잡힌 소매와고딕양식. (2006 Fall 지방시 꾸뛰르)



<그림35> 19세기말 스커트를 부풀리기 위해 사용했던 후프. (Vogue Korea Jan 2002)



했던 후프는 버슬의 형태로 옮겨가면서 엉덩이를 확대 과장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요지 야마모토는 버슬의 형태를 독특한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말이 새끼를 낳을 때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검정 드레스에 붉은색의 망사로 강렬하게 표현되었다<그림34>. 위의 내용을 근거로 탈 시대 및 문화에 의한 과거 복식의 현대적 재해석은 <표3>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림36>  
요지 야마모토의  
버슬 형태.  
(1986F/W 요지  
야마모토)

## V. 결론 및 제언

패션에 나타난 변형의 방법인 확대, 과장, 축소, 왜곡을 통해 인체를 재인식하여 다양한 양상들이 표출되었다. 패션의 변형을 시대, 문화에 따른 의복에 나타나는 변형과정이 패션의 표현 방법인 트렌드와 문화적 이슈 및 디자이너의 예술적인 감성에 의해 여러 가지 형태의 디자인으로 창조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은 ‘변형’이라는 수단으로서 다양하고 자유롭게 구성되어 질 수 있는 변형특징들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세기 이후 패션에 나타난 확대, 축소, 단순화, 해체에 따른 변형의 의미와 ‘변형’의 개념에 있어서 인체를 재인식하여 고정화된 개념에서 탈피하여 해체된 인체와 인간상으로 탈 재현된 변형을 피하고 있다. 인체를 원래의 대상 그대로 표현하기 보다는 조형화하는 도구나 매개체를 이용하여 직·간접적으로 변형되어지는데 인체의 부분들을 의복에 대입하여 각 구성부분에서 다양한 변화를 위한 시도를 하였다. ‘변형(變形, Transformation)’이란 대상을 디자이너의 감성으로 분해, 왜곡, 축소, 과장, 단순화시키는 것으로 안정적인 형태에 변화를 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의복구성학적인 관점에서 인체의 미적 의미

및 의복의 연관성을 인체와 의복구성에 표현된 디테일 변형으로 칼라, 네크라인, 어깨(재킷:상의류), 소매, 브라, 뷔스티에, 코르셋, 스커트, 팬츠의 형태가 패션에 나타난 ‘변형’의 방법인 확대, 축소, 단순화, 해체를 통해 표현되었다.

의복의 조형부위별 변형의 표현 방법을 살펴보면 확대에 의한 과장성은 상하 길이의 연장과 좌우 크기의 변형 확대와 비대칭적인 요인을 도입하고 있으며 기하학적인 도형의 의미를 확대하기도 한다. 축소에 의한 대표적인 변형의 방법은 허리 부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다른 예술 조형 분야와 달리 패션에 나타난 축소를 통한 형태변형의 특징이라면 인체의 들어간 부위를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변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인체의 부위 중 축소의 의미를 표현하는 데는 시대의 미적인 기준과도 같은 맥락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허리는 더욱 가늘게 조이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단순화에 의한 최소의 형태로 인체를 가리는 데는 많은 사회적 논란과 마찰을 초래하기도 한다. 인체의 가려지는 부분보다 보이는 부분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다소 부담스러운 형태를 취하기도 하는데 그것조차도 현대의 패션디자이너들은 선구자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인정할만한 시각적인 즐거움이 되고 있다. 단순화에 의한 패션의 변형에서는 의복의 필요 부분만을 극소적으로 남겨 인체를 그대로 노출하는 방법을 많이 취하게 된다. 해체에 의한 변형은 의복의 구성 부분들을 조형적으로 확대, 축소, 단순화의 과정으로도 나타낼 수 없는 새로운 요구는, 의복을 찢거나, 분해하여 새로운 창작품을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조형의지는 외적으로 불완전 하면서도 고정관념을 깨는 독특한 이미지를 전달하게 된다. 해체의 묘미는 의외성과 우연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속적인 행위이며 의복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려는 일탈성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내적인 의지의 변형요인으로 탈 신체에 대한 변형은 과거 직접적인 인체 변형을 위한 장식적인 욕구에서 인체변형을 가하던 것에서 패션의 간접적인 해석을 통해 장식적인 액세서리로 재

해석되고 현대의 기계문명에 대응하는 원시적인 형태의 의복으로 나타났다. 순수하게 인체만을 변형하는 방식조차도 디자이너들에게 있어 의복의 관점으로 해석되거나 과도한 장식성의 욕구로 극대화 되어 예술적인 양상을 띄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탈 문화에 의한 변형의 방법으로 작가는 과거의 의복에서 영감을 얻어 현대에 맞게 재구성되는 과정을 겪는데 이것은 구성 부분들의 표현요소로 발생하는 각 부분들의 특징을 현대에 도입하고 있다. 디자이너는 변형의 표현요소들을 시대적인 의복의 변형에 대입하는데 과거의 의복문화가 획일적인 유행과 그 추종에 의해 변형되고 있다면 현대는 의복에 있어 특징적인 부분만을 취하여 탈 신체와, 탈문화를 일탈성으로 대변하여 극단적으로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형의 방법으로 인체를 표현하는 패션 디자인의 방법은 확대, 과장, 축소, 왜곡, 해체 등으로써 디자이너들은 조형적, 심리적 의지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화를 향한 작업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과거의 변형이 인체의 이상적인 미와 균형을 위한 시도였다면, 현대 패션에서의 변형은 자유로운 창조적 주관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체의 재인식을 통한 부분적인 변형을 시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인체의 직접적 변형과 자연에서 얻은 부속품을 통해 장식적 욕구를 충족하였다면 현재는 의복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복의 부분들을 변형하여 극단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인체의 각 부위를 의복에 대입하여 극단으로 변형하는 데는 인간의 내재적인 유희와 대리만족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탈 신체 및 탈 시대와 문화를 통한 변형을 패션을 통해 재해석하는 데는, 인간의 인체가 가진 한계성을 극복하고 표현하려는 심리를 의복구성 부분의 해체와 변형의 다양성을 통해 실현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패션에 나타난 의복의 변형을 외관의 형태에 치중하여 디테일하게 마무리된 세부적인 요소를 사진만으로 분석하기에

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의복구성상의 특징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구체적인 패턴의 제시를 후속 연구에 보완한다면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형된 의복의 기술적인면도 충분히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 참고 문헌

- 1) Lipovetsky, Gilles (질 리포베츠키) (1987). *L'EMPIRE DE L'ÉPHÉMÈRE*. 이득재 옮김. (1999). 패션의 제국. 서울: 문예출판사, pp.9-27.
- 2) 이민정 (2003). 현대 패션에 나타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문화의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83.
- 3) 김성곤 (1988). *탈구조주의의 이해*. 서울: 민음사, p.22.
- 4) 박현신 (2003). 20세기 후기 패션의 신체부재와 탈 재현 현상.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61-84.
- 5) 김봉구 (1982). *미술해부학*. 서울: 금화출판사, p.199.
- 6) Constantin Brancusi(1876-1957): 루마니아의 조각가, 파리에나와 미술학교에서 메르세에 사사(師事). 살롱 드 잔데팡당에 출품, 입체파 추상파 조각의 대표자.
- 7) Geist, Sidney (1969). *Brancusi 1876-1957 A Retrospective Exhibition* (New York: The Solomon R. Guggenheim Foundation), p.41.
- 8) 조열, 김지현 (1999). *기초디자인을 위한 형태지각과 구성 원리*. 서울: 창지사, pp.9-11.
- 9) 김미현 (2002). 크로스오버 디자인 연구 : 확대와 과장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0) 이현주 (1987). 현대 일러스트레이션에 있어서 '인체표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26.
- 11) 이수진 (2003). 패션에 표현된 변형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6-20.

- 12) Ibid., p.26.
- 13) 김영자. (1998). *복식미학의 이해*, 서울: 경춘사. pp.155-157.
- 14) Ibid., p.26.
- 15) Bernasconi, R. & Wood, D., ed, (1988). *Derrida and Difference*, trans. by D. wood, A. Benjamin (Evanston: Northwestern Univ. Press)
- 16) Spindler, Amy M. (1993, July 25). *Coming Apart*. The New York Times. pp.8-9.
- 17) 조선희, 서경희. (2003). 패션에 표현된 해체주의 조형양식의 특성에 관한연구 II. *산업기술연구 15*, pp.67-85.
- 18) Deyan Sudjio. (1990). *Rei Kawakubo and Comme des Gareons*, New York : Rizzoli, p.10.
- 19) 이순홍 외 8인. (2004). *세계복식과 패션정보*. 서울: 교문사, pp.199-219.
- 20) 오소영 (1987). 인체변형의 조형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3.
- 21) Canaday, John(존 카나데이). *What is art?*. 김영방 옮김. (1982). *미술이란 무엇인가?*. 서울: 덕성여대 출판부, p.23.
- 22) 김봉구 (1982). Op. cit., p.9.
- 23) 박현신 (2003). Op. cit., pp.1-8.
- 24) 권기영, 조필교 (2003). 현대 패션디자인에 표현된 신체이미지의 상징성. *복식문화연구 8*(5), pp.704-705.
- 25) 김영자 (1998). Op. cit., p.103.
- 26) Ibid., pp.113-118.
- 27) 신연중, 김형철 (2003). *매니플레이션에 의한 체형·가봉·패턴 보정*. 서울: 도서출판 식신, p.186.
- 28) 이은영 (2003). *복식디자인론*. 서울: 교문사, p.10-12.
- 29) Vogue Korea Jan 2002 (2002). 서울: (주)두산인쇄, p.137.
- 30) 정홍숙 (1999).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175.
- 31) Ibid., p.175.
- 32) [http://www.style.com/fashionshows/collections/S2004CTR/complete/slideshow/CDIOR?event=show946&designer=design\\_house27&trend=&iphoto=19](http://www.style.com/fashionshows/collections/S2004CTR/complete/slideshow/CDIOR?event=show946&designer=design_house27&trend=&iphoto=19)
- 33) 동아TV (2006). '06-'07 A/W Paris & Milan NewYork Collection Vol.12. 서울: 동아TV, p.26
- 34) [http://www.style.com/fashionshows/collections/F2006CTR/complete/slideshow/GIVENCHY?event=show1503&designer=design\\_house44&trend=&iphoto=35](http://www.style.com/fashionshows/collections/F2006CTR/complete/slideshow/GIVENCHY?event=show1503&designer=design_house44&trend=&iphoto=35)
- 35) Vogue Korea Jan 2002 (2002). Op. cit., p.137.
- 36) Ibid., p.138.
- 37) <http://www.japaneselifestyle.com.au/culture/samurai.html>
- 38) <http://www.fashion-verleih.de/Kostueme.htm>
- 39) Vogue Korea Jan 2002 (2002). Op. cit., p.138.
- 40) [http://www.style.com/fashionshows/collections/F2006CTR/complete/slideshow/CDIOR?event=show1503&designer=design\\_house27&trend=&iphoto=37](http://www.style.com/fashionshows/collections/F2006CTR/complete/slideshow/CDIOR?event=show1503&designer=design_house27&trend=&iphoto=37)
- 41) 동아TV (2004). *Collection Vol.9 05 SS Paris Milan*. 서울: 동아TV, p.54.
- 42) Vogue Korea Jan 2002 (2002). Op. cit., p.138
- 43) [http://library.shu.edu/gallery/arc-Joan\\_of\\_Arc\\_Engraving.jpg](http://library.shu.edu/gallery/arc-Joan_of_Arc_Engraving.jpg)
- 44) <http://www.style.com/trends/stylenotes/062406/slideshow/062406NOTES?loop=0&slideshowId=slideshow34469&iphoto=6&play=false>
- 45) <http://www.style.com/trends/stylenotes/062406/slideshow/062406NOTES?play=false>
- 46) Teresa Riordan. 오혜경 옮김 (2005). *아름다움의 발명*. 서울: 마고박스, p.326.
- 47) Vogue Korea Jan 2002. (2002). Op. cit., p.138.
- 48) Ibid., p.138.
- 49) <http://www.style.com/trends/stylenotes/062406/slideshow/062406NOTES?loop=0&slideshow>

- Id=slideshow34469&ipfoto=7&play=false
- 50) <http://www.style.com/trends/stylenotes/062406/slideshow/062406NOTES?loop=0&slideshowId=slideshow34469&ipfoto=1&play=false>
- 51) [http://www.style.com/fashionshows/collections/F2006CTR/complete/slideshow/CDIOR?event=show1503&designer=design\\_house27&trend=&ipfoto=1](http://www.style.com/fashionshows/collections/F2006CTR/complete/slideshow/CDIOR?event=show1503&designer=design_house27&trend=&ipfoto=1)
- 52) Vogue Korea Jan 2002. (2002). Op. cit., p.138.
- 53) Ibid., p.138.
- 54) Ibid., p.138.
- 55) Ibid., p.139.
- 56) Ibid., p.139.
- 57) Colin Mcdowell. (1998). *GALLIANO*. New York: Rizzoli, p.16.
- 58) 양숙향 외 2인 (2006). *패션20세기*. 서울: 교학연구사, p.25.
- 59) Vogue Korea Jan 2002. (2002). Op. cit., p.139.
- 60) Colin Mcdowell. (1998). *GALLIANO*. New York: Rizzoli, p.17.
- 61) Gene Krell. (1997). *Vivienne Westwood*. New York: Universe & Vendome, p.63.
- 62) Vogue Korea Jan 2002. (2002). Op. cit., p.139.
- 63) Ibid., p.139.
- 64) Ibid., p.139.
- 65) Ibid., p.139.
- 66) 동아TV (2003). *2004 S/S Paris & Milano Collection Vol.7*. 서울: 동아TV, p.250.
- 67) Vogue Korea Jan 2002 (2002). Op. cit., p.139.
- 68) Gene Krell (1997). *Vivienne Westwood*. New York: Universe & Vendome, p.58.
- 69) Ward, Mattew and Howard, Richard trans. (1973). *The Fashion System*. New York : Hill and Wang., p.258.